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

- 2025 히다카 시민축제 방문단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25. 11.



오 산 시 의 회

|| 목 차 ||

I. 출장개요	1
II. 출장국가 및 도시현황	3
III. 출장일정	8
IV. 출장내용	9
1. 히다카 일정	9
2. 도쿄 일정	15
VI. 출장결과	19

I 출장 개요

□ 출장국 : 일본 [히다카, 도쿄]

□ 출장목적

-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히다카 시민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양 도시 간 지속 가능한 우호 협력 관계를 모색
- 도심공원 운영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향후 오산시 도시환경 개선 사업 접목

□ 출장기간 : 2025. 11. 7.(금) ~ 11. 10.(월) (3박4일)

□ 보고서 작성자 : 이상복,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

□ 출장자 인적사항

연 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2		전도현	의원
3		송진영	의원
4		조미선	의원
5		전예슬	의원
6		노경석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7		김용석	의회사무과 홍보팀장
8		구아라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9		배지원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전번호	심의일시	심의안건	심의 결과
2025-2호	2025.11.27.	2025 히다카 시민축제 방문단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적정

□ 출장효과

○ 우호 협력 관계 강화

히다카 시민축제 기념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우호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행정·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 마련

○ 도심공원 운영 및 활용 사례 벤치마킹

우에노 및 요요기 도심공원의 운영 현황과 시설 배치, 시민 이용 형태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 시 도심공원 조성 및 관리 방안 개선에 실질적인 자료 확보

○ 야간경관 조명 선진사례 체험

도쿄 도심 내 주요 지역의 야간 경관조명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공공장소 및 주요 관광지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및 기술적 요소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 기관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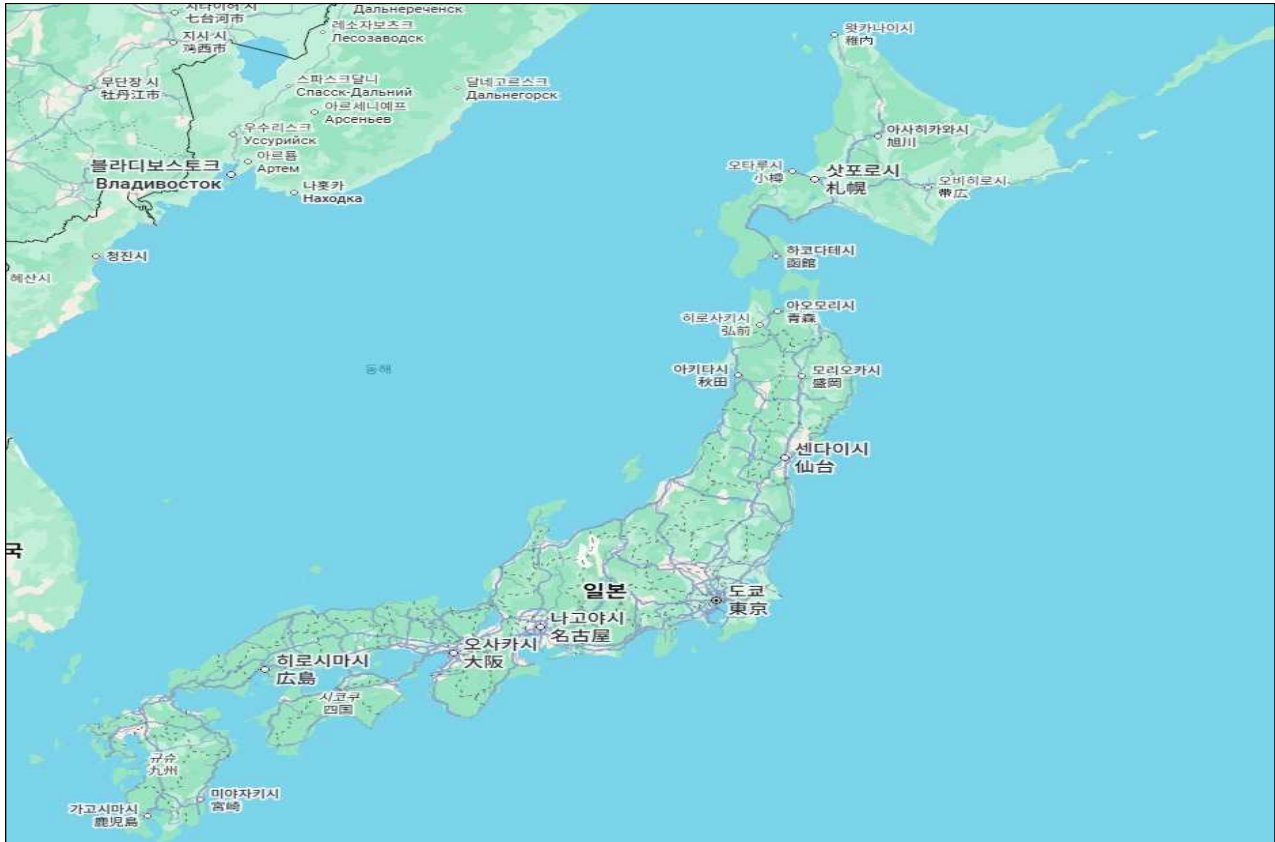
연 번	방문일자	장 소	소 재 지	비고
1	11.7.(금) ~ 11.8.(토)	히다카 시청	히다카	
2	11.9.(일)	도쿄국립박물관	도쿄	

□ 현장방문

연번	방문일자	장 소	소 재 지	비고
1	11.8.(토)	고마신사	히다카	
2	11.8.(토)	무민밸리파크	한노	
3	11.9.(일)	에도거리	가와고에	
4	11.9.(일)	우에노공원	도쿄	
5	11.9.(일)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6	11.10.(월)	요요기공원	도쿄	

Ⅱ 출장국가 및 도시 현황

□ 일본



- 수 도 : 도쿄
- 언 어 : 일본어
- 화 폐 : 엔(JPY,)
- 면 적 : 37만 8,000km² (한반도의 약1.7배)
- 인 구 : 1억 2,329만명(2025년4월)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 양원제 (참의원/중의원)
- G D P : 4조 1,864억\$ (대한민국 1조 7,903억\$)
- 1인당 GDP : 32,860\$ (대한민국 36,130\$)

□ 히다카시

주 소	日本國 埼玉縣 日高市 大字南平澤 1020番地
자매결연체결	1996. 10. 1.(체결장소 : 히다카시청) - 행정, 산업,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의 교류
연 혁	○ 서기 716년 고구려인 1,799명이 이주 고구려군 설치 ○ 서기 1965년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구 급속증가 ○ 서기 1991. 10. 1. 히다카시로 승격
지역특성	○ 사이타마현의 남서부에 위치하였으며 동부는 완만한 대지로, 시가가 펼쳐져 있고 서부는 구릉과 산악으로 이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오쿠무사시 공원이 있음. ○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수도 동경과는 50km 테두리 안에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통근권임. ○ 시의 중앙으로 맑은 고려천이 흐름. ○ 해발 100~300m
시의 상징	○ 시화 : 싸리, 만주사화(상사화) ○ 시목 : 물푸레나무 ○ 시조 : 물총새
면 적	○ 총 : 47.48km ²
인 구	○ 54,037명 / 25,340가구 (2025.4월 기준)
행정구역	○ 79구
행정조직	○ 8부 26과 1의회 5사무국
공무원수	○ 총 382명
시 의회	○ 의원 : 16명

□ 히다카시장(야가사키 테루오) 프로필

○ 성명 : 야가사키 테루오 (谷ヶ崎 照雄) ○ 생년월일 : 1954년 9월 1일 ○ 출신 : 사이타마현 히다카시		
경력	▪ 사이타마현립 마쓰야마 고등학교 졸업 ▪ 히다카시 공무원(1977년) ▪ 히다카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장 겸 중앙공민관장 ▪ 히다카시 기획재정부 기획과장 ▪ 히다카시 기획재정부장(2007년) ▪ 히다카시 총무부장(2011년) ▪ 히다카시 부시장(2012년 4월) ▪ 히다카시 시장 취임(2012년 5월)~현재 3기째 역임 중	
기타	○ 취미 : 산행, 독서	
좌우명	○ 성심성의	

□ 히다카시의회 의원 현황

○ 의원 정수 16명

성명	사진	소속 (당선헌수)	주요 경력
카네오 히로시 (의장)		무소속 (재선)	· 25.3.12 히다카시의회 의장 취임 · 총무복지 상임위원회 · 사이타마현 서부 소방조합 의회 위원
카토 다이스케 (부의장)		지구사회당 (재선)	· 25.3.12 히다카시의회 부의장 취임 · 교육경제상임위원회, 의회신문편집위원 · 이루마 서부 위생 협회 위원
조쇼 미나코		모두의 마음당 (초선)	· 총무복지상임위원회
이츠나리 코타노		시쇼카이당 (초선)	· 총무복지상임위원회 · 의회편집위원회
나리타 나오코		무소속 (초선)	· 총무복지상임위원회 · 의회편집위원회
콘도 사오리		레인보우소 사이어티당 (초선)	· 교육경제상임위원회
요코오 타카후미		히다카 업데이트당 (초선)	· 총무복지상임위원회 · 의회편집위원회
아라이 히토시		지구사회당 (초선)	· 총무복지상임위원회 · 의회편집위원회
카토 쇼교		미래이당 (초선)	· 문화교육경제상임위원회 · 의회뉴스편집위원회
와다 요시히로		야망의 카이당 (재선)	· 전반기 부의장 · 교육경제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사이타마현 서부 소방조합의회 의원

성 명	사 진	소속정당	주요 경력
미키 신야		공명당 (재선)	· 총무복지상임위원회 · 의회편집위원회 · 도립 한노 사이바협회 회원
스즈키 타케오		공명당 (4선)	· 전반기 의장 · 교육경제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이루마 서부위생협회 위원
사토 마코토		일본공산당 (3선)	· 교육경제상임위원회 · 의회편집위원회 · 도립 한노 사이바협회 회원
오사와 히로유키		미래이당 (5선)	· 총무복지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이루마 서부위생협회 위원
야마다 가즈시게		히다카 업데이트당 (5선)	· 교육경제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이루마 서부위생협회 위원
모리사키 시게요시		시쇼카이당 (6선)	· 교육경제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이루마 서부위생협회 위원

Ⅲ 출장 일정

날 짜 (요일)	시 간	출 장 내 용	비 고
11월 7일 (금요일)	08:00	•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집결	
	09:55	• 인천국제공항 출발	대한항공(KE703)
	12:25	• 나리타 공항 도착	
	17:00	• 히다카 시청, 시의회 예방	
	18:00	• 히다카 시장·의장 주최 환영만찬 - 인사말씀(시장, 의장) - 기념품 교환 • 오산시장 ↔ 히다카시장 • 오산시의장 ↔ 히다카시의장 • 오산시교류협회장 ↔ 히다카시교류협회장	야가사키 데로우(히다카 시장) 카네오 히로시(히다카 시의장)
11월 8일 (토요일)	10:00	• 히다카 시민축제 개막식 참석 및 행사장 견학	
	11:20	• 유소년 스포츠 교류 성과 보고회 참석	히다카 시청
	13:30	• 고마신사 견학	
	15:00	• 무민밸리파크 견학	
	19:00	• 친교 간담회 참석 (히다카 부시장, 시의장, 시의원, 교류협회회장 등 참석)	
11월 9일 (일요일)	09:30	• 가와고에 에도거리 견학	
	14:00	• 도쿄 국립박물관 견학	
	15:00	• 우에노 공원 견학	
	17:00	• 도쿄 스카이트리 견학	
11월 10일 (월요일)	10:00	• 요요기 공원 견학	
	14:00	• 도쿄 젊음의 거리(신주쿠, 하라주쿠) 견학	
	17:00	• 하네다 공항 집결	
	19:50	• 하네다 공항 출발	대한항공(KE2104)
	22:25	• 김포공항 도착	

IV 주요 출장 내용

히다카 시민축제

< 개 요 >

- (일시) 2025. 11. 8. ~ 11. 9. (매년 11월초 개최)
- (장소) 히다카 아레나 광장
- (참여인원) 약 27,000여명 (2일간)
- (주제) 미래와 미소를 연결하는 히다카 축제
- (주최) 히다카시, 히다카 시민축제실행위원회, 히다카 상공회, 히다카 관광협회
- (내용) 상공업 단체 전시, 농산물 박람회, 지역전통예술 (사자춤, 하야시 연주 등) 공연, 국화전시, 캐릭터쇼, 스포츠 스탬프 랠리 등

□ 특징

- 지역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결집하여 주민, 상공업체, 관공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 행사로 자리 잡음
- 만주사화(피안화) 군생지¹⁾와 시민 축제가 결합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며 특히 가을철에는 꽃구경과 축제 참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
- 고마신사(高麗神社)의 사자 무용, 하야시 연주 등 전통 예능이 시민축제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통문화 보존하고 있음
- 무대 발표 참가 자격이 “히다카 거주자 또는 직장인” 으로 지역 주민 중심의 참여 구조

1) 킨차쿠다 공원 :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피안화와 코스모스가 군락하는 면적 22ha의 군생지

□ 시사점

- 프로그램 다양성 : 히다카 시민축제는 매우 다채롭고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하는 구성이 강함 (무대 발표, 캐릭터 쇼, 전통 예능, 어린이 놀이 등)
- 공공-민간 협력 : 축제 운영 주체에 시(市), 상공회, 관광협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출점 부스도 지역 상공업체와 농업 단체가 활발히 참여
- 안전 / 교통 관리 : 차량 통행 금지 구역 설정 + 무료 시내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운영 체계
- 홍보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불꽃놀이, 스탬프 릴리 등 이벤트를 더해 주민의 참여 유도 및 지역 커뮤니티 결집 효과가 큼



유소년 스포츠 교류 성과보고회

< 개 요 >

- (일시 / 장소) 2025. 11. 8. / 히다카 시청
- (참여인원) 50여명 (시장, 의원, 선수, 학부모 등)
- (주최) 히다카 스포츠 교류단
- (내용) 2025년 제16회 오산시·히타카시 유소년 스포츠 교류
(‘25.10.17.~10.19.) 성과보고

□ 내용

- 2003년부터 양 도시의 청소년 축구 선수가 격년제로 상대 도시를 번갈아 방문하여 한·일 청소년 간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의 기회 마련
- 히다카 스포츠 교류단에게 홈스테이, 미니어처 빌리지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여 미래 세대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 우호교류 3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에는 유소년 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교류 확대 제의



고마신사 [高麗神社]

- (고마신사) 고구려에서 건너온 도래인 고마왕 약광²⁾을 기리는 신사
- (역사) 오랜기간 동안 많은 고구려인이 일본으로 건너와 도래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고구려 멸망 후 야마토 정권(716년)이 관동 일원에 살고 있던 1,799명의 고구려인을 이주시켜 고마군을 설치하고 약광을 초대 군수로 임명함.

이후 고마군민들은 그 덕을 추모하고 약광의 영혼을 모셔 고마군의 수호신으로 삼음. 고마군은 1200여년 가까이 계속 이어오다 1896년 이루마군으로 편입, 현재까지 약광의 직계자손들이 대를 이어 고마신사의 주지를 맡음

- (특징) 히다카시는 제5차 종합계획의 전기 기본계획으로서 고마전군 1300주년 기념 프로젝트 추진 중.

주요 내용은 “시간”, “장소”, “사람”, “음식”, “꽃”을 연계한 관광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에 이르러 약광의 애민정신과 개척정신에 감명을 받은 많은 일본의 정치인, 문학가, 역사가 등이 참배를 위해 고마신사를 방문하고 있음



2) 고마왕 약광은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고 고마군의 군수로 임명되어 무사시 지역을 개척함

무민밸리파크

< 개 요 >

- (일시 / 장소) 2025. 11. 8. / 사이타마현 한노시
- (면적) 약 187,000m²
- (개장일) 2019. 3. 16.
- (내 용) 북유럽 무민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테마파크로 자연환경보전과 스토리 기반 콘텐츠 운영이 돋보임

□ 특징

- 무민밸리파크는 웰컴코브(Welcome Cove), 무민밸리(Moomin valley), 코케무스(Kokemus), 고요한 언덕(Lonely Mountain)의 4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음
-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호수와 숲을 활용해 북유럽 자연 특유의 감성이 느껴짐
- 공원 중앙에는 무민밸리파크 전체를 축소한 스케일 모델이 있어 방문객이 전체 공원의 구조와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놀이기구보다는 무민 원작의 정서, 캐릭터, 세계관 체험에 중점을 둔 스토리 중심의 테마마크임
- 매년 가을에는 수확(Harvest)을 테마로 축제가 열리고 사과나무 장식 및 불꽃놀이 등 시즌별 볼거리가 많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



가와고에 에도거리

< 개 요 >

- (일시/장소) 2025. 11. 9. /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 (내 용) 사이타마현 남서부의 중심 도시로 중심부에는 에도시대 거리가 남아 있어 현재 “작은 에도”로 불리고 있음

□ 특징

- 전통 건축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에도시대의 쿠라즈루리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음
- 도키노카네(시계탑)은 17세기부터 이어온 가와고에의 랜드마크로 하루 4차례 종이 울리고 있으며, 또한 거리는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 초반의 상점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좁은 골목의 소박한 분위기가 인상적임
- 건축물 리모델링을 할 경우 외관 디자인 규제로 전통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고 간판, 노점 등에 일관된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도쿄국립박물관

< 개 요 >

- (일시/장소) 2025. 11. 9. / 도쿄도 타이토구 우에노 공원 내
- (개 관) 1872년
- (내 용) 일본 최대의 종합 박물관, 아시아 문화재 연구·보존 기관

□ 특징

-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내 1872년에 설립된 박물관³⁾으로 본관, 도요칸, 효케이칸, 헤이세이칸, 호류지호모츠칸, 총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
- 연간 상설 전시 교체 횟수 약 300회로 본관은 일본고대 ~ 근대까지 시대별 유물 및 사무라이 갑옷 등 전시, 동양관은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 문화재 전시, 헤이세이칸과 효케이칸은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음
- 단일 건물인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시 면적이 작아 보이나, 다수의 개별 전시관으로 기능을 분산 전문화 한게 특징임
-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수집한 유물 중 상당수가 도쿄국립 박물관에 기증됨
- 가야왕관, 금산사 향로, 종, 보살반가상, 여래와 두 협시보살 입상 등 다양한 우리나라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음
- 전시된 일부 한국 유물은 도굴 또는 불법 출토된 유물이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개인소유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3) 약 12만점 (국보 80점, 중요문화재 648점)의 소장품 보유

우에노 공원

< 개 요 >

- (일시/장소) 2025. 11. 9. / 도쿄 타이토구
- (개 장) 1873년
- (내 용) 도쿄 다이토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538,000m²이며 연간 1,5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쿄의 대표 공원

□ 특징

- 공원 내 국립박물관, 미술관, 과학박물관, 문화회관, 동물원, 사찰 등이 위치해 공원+문화+관광 등 복합 공간의 기능을 함
- 방문목적이 다양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길고, 계절(벚꽃, 단풍, 연꽃), 축제(연말연시), 전시(전시회 시즌) 등 이벤트가 끊임없이 진행됨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 안내판과 단순하고 직관적인 안내지도 및 QR기반 디지털 안내서비스 제공 등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
-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구역이 존재하며 공원 내 쓰레기 통 배치를 최소화하여 쓰레기 개인 배출 원칙을 준수

< 도쿄 국립박물관 및 우에노 공원 관련 사진>



도쿄 스카이트리

< 개 요 >

- (일시/장소) 2025. 11. 9. / 도쿄 스미다구
- (개 장) 2012년
- (내 용)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634m 높이의 전파 송출용 초고층 타워로 야간에 LED 조명을 이용하여 도쿄 야경을 대표함

□ 특징

- 도쿄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파노라마 전망과 복합문화와 사업공간이 결합한 도시형 랜드마크 모델임
- 매일 야간에 바뀌는 조명테마는 도쿄의 야경을 대표하며 이벤트 시즌(크리스마스, 벚꽃 시즌 등)에는 특별 라이팅을 연출함

□ 도쿄 스카이트리 크리스마스 마켓 (2025. 11. 6. ~ 12. 25.)

- 스카이트리 바로 아래 크리스마스 마켓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유동인구 확보와 야외광장에 조명아케이드, 일루미네이션,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등 포토존이 다양함
- 유럽식 전통 마켓⁴⁾ 분위기(목재부스, 전구장식)를 강조했으며 산타 만남, 공예체험 등 참여형 이벤트 실시



4) 목조 헛트로 15개 정도가 유럽풍으로 설치

요요기 공원

< 개 요 >

- (일시/장소) 2025. 11. 10. / 도쿄 시부야구
- (개 장) 1967년
- (내 용)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면적 약 540,000m²의 숲지역(A구역)과 광장/이벤트 구역(B구역)으로 나뉘어진 대표적인 도쿄 도심공원

□ 특징

- 1964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 부지로 올림픽 이후 도쿄 도심의 녹지 확보 정책에 따라 정식 공원으로 개장
- 우에노 공원은 국립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이 공원 안에 집약된 복합문화공원이라면 요요기 공원은 가벼운 일상 속에서 가는 시민생활형 공원임
- 도심 속 대형 개방형 공원으로 도쿄 중심부 한 가운데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⁵⁾으로 많은 시민들이 운동·휴식·축제 공간으로 활용
- 공원 전체를 도는 트랙이 잘 정비 되어 있으며 분수, 연못, 벤치가 많고 수목이 많아 사계절 경관이 뚜렷함



5) 하라주쿠역에서 도보 약 3분거리이며, 요요기코엔역 및 메이지진구마에역에서도 5분 거리로 접근 가능

이상복 의장

- 자매도시인 일본 히다카시의 제34회 시민축제 초청 등을 받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공무국의 여행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오산시와 일본 히다카시는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상호교류 활동을 펼쳐오며 양 도시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왔다.
-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인 이번 히다카시 방문과 히다카시 시민의 날 축제 참가를 통해 히다카시 시민과 공무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오산시와 히다카시가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히다카시 학생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시작한 히다카시 시민의 날 축제는 주요 내빈들이 모두 그들의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 축제 참관을 마치고 찾은 ‘고마신사’는 고구려의 사절단 ‘약광’이 일본으로 건너와 1,799명의 고구려인과 함께 땅을 개척하고 고마군을 만들어 다스렸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사라고 하는데 1,300여년 전에 고구려가 멸망한 뒤 일본으로 넘어온 ‘고구려의 혼’을 간직한 고마신사 방문을 통해 잃어버린 고구려 역사의 향기를 일본에서 느껴볼 수 있는 의미있는 방문이었다.

- 도심공원 조성과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방문했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요요기 공원과 우에노 공원은 우선 시민들이 찾아가기에 접근성이 너무 좋았으며 도심 속 넓은 면적에 울창한 숲과 넓은 잔디를 조성해 수많은 시민이 자연을 만끽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우에노 공원과 접하고 있는 도쿄국립박물관은 1872년도에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본관과 동양관 등 5개의 전시관과 자료관으로 구성되고 약 11만 6천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역사가 유구하고 방대한 박물관이었다. 그러나 박물관 내부 5층 동양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국관의 유물 들을 관람하는 순간, 일본에서 한국의 고귀한 유물을 만났다는 기쁨과 반가움 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약탈된 수많은 한국의 유물들이 일본 도심 한복판에 전시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인 오구라 라는 사람이 한반도 전역에서 유물 1,100여점을 갈취해 ‘오구라 컬렉션’ 이라고 불린다는 현실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심정이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문화재 반환 요청에 대해 민간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 취득한 문화재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만큼 하루빨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우리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보는 방문이었다.

전도현 의원

-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오산시와 자매도시 관계인 히다카시를 방문하고 이어 도쿄 주요 도시공원과 도심 야간경관 활용 사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자매도시 방문은 양 도시의 간의 오랜 신뢰와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히다카시 시민축제 현장에서 히다카시 시장 및 시의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친목을 다졌고 행정·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히다카시가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시청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크게 펼쳐진 마켓과 체험공간이 인상 깊었다. 각종 먹거리 외에도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모습과 어린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놀거리들도 설치되어있는 부분이 진정한 지역 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현장을 본 것 같았다. 향후 오산시 지역축제 운영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다.
 - 도쿄일정에선 요요기 공원과 우에노 공원 방문을 통해 도심공원의 운영·관리체계를 직접 확인하였다. 두 공원 모두 도심에서 보기 드문 큰 규모의 공원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었는데 그 중 우에노 공원은 공원 내 중앙 공간에 펜스를 둘러 작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공원이 단순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문화·여가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이는 추후 오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개선 사업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 특히 공원을 단순 녹지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활동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는 오산의 다양한 공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도쿄 스카이트리 방문을 통해 야간경관 조명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스카이트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답게 건축물 전체를 활용한 대규모 조명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 색과 패턴으로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해 내고 있었고 지역 상권·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점도 눈여겨볼만했다. 특히 내부 전망대를 나선형으로 설계하여 관광객들이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도쿄 시내 전경을 볼 수 있게 한 점 또한 인상 깊었다. 이런 선진사례들은 오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간 경관조명 사업에 도입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도시 미감을 높이는데 있어 조명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 이번 국외출장은 단순한 자매도시 방문을 넘어, 도시 간 교류 활성화·도시공원 관리 선진화·야간경관 발전 방향 모색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적인 성찰과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값진 기회였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살피고, 배운 점을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송진영 의원

-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히다카시 시민축제 개막식과 행사장을 둘러 보며 일본 지방도시가 지역축제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 축제장은 거창한 구조보다는 시민·상인·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고, 시청 인근에 자리한 시장과 체험존도 부담 없이 들렀다가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구성돼 편안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축제 공간이 시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시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도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 가와고에 낭만거리 방문시에는 전통 건물과 현대 상점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모습뿐 아니라, 지역 특산품인 고구마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거리 전체에서 판매·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히 눈에 띄었다. 고구마를 활용한 디저트·기념품이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활발히 판매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였다. 이런 사례는 오산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느꼈다.
- 도쿄 일정에서는 우에노 공원과 요요기 공원의 이용 환경을 살펴 보며 도시공원이 시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 공원 곳곳에 화장실이 충분히 배치되어 접근성이 좋았고, 반려견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의 공원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스카이트리 주변의 야간경관 벤치마킹을 통해 보행 동선에 맞춘 조명 배치와 건물 외관의 조도 조절 방식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야간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으로 오산시 경관 조성에도 참고할 만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 이번 방문을 통해 축제, 거리, 공원, 야간경관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중심에 두고 설계될 때 지역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오산시의 도시경관 개선, 원도심 활성화, 공원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미선 의원

- 이번 히다카시 방문은 자매도시 간 우호 교류를 넘어, 시민을 위한 축제 구성과 가족 친화적 공간 조성에 대한 일본 지자체의 운영 방식을 확인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 특히 히다카시 시민축제는 개막식부터 지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놀이기구와 교육적 요소를 담은 소방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 되어 있어 축제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자연스러운 체험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구성은 지역축제가 지역복지와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오산시가 향후 추진할 시민 참여형 축제 운영에도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 유소년 스포츠교류 귀국보고회에 참석하며 양 도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온 청소년 교류 사업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교류에서는 히다카시 선수들이 오산 유소년축구 시민 가정에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머물며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고, 단순한 경기 중심의 교류를 넘어 문화·생활 경험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쌓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였으며, 오산시도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쿄의 우에노 공원과 요요기 공원을 둘러보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 내에는 휴식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문 당시 날씨가 다소 추워 시민들이 실외보다 실내를 선호하며 인근 카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많았다. 그럼에도 공원 내 버스킹, 분수 공간 등 시민들이 여가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곳곳에 설치된 화장실은 접근성이 좋아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오산시가 지향하는 문화 도시 조성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었다.

전예슬 의원

○ 일본의 지방정치와 의원정수

이번 자매도시 방문을 통해 히다카시 의원들과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일본의 지방정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일본의 지방정치는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며 시민과의 접점이 매우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히다카시는 인구 약 5만 5천 명의 도시에 의원정수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속 정당은 9개로 지자체별 자율적인 의원정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시민의 의견이 의정에 보다 세밀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오산시 또한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정수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요요기공원 · 우에노공원의 도시공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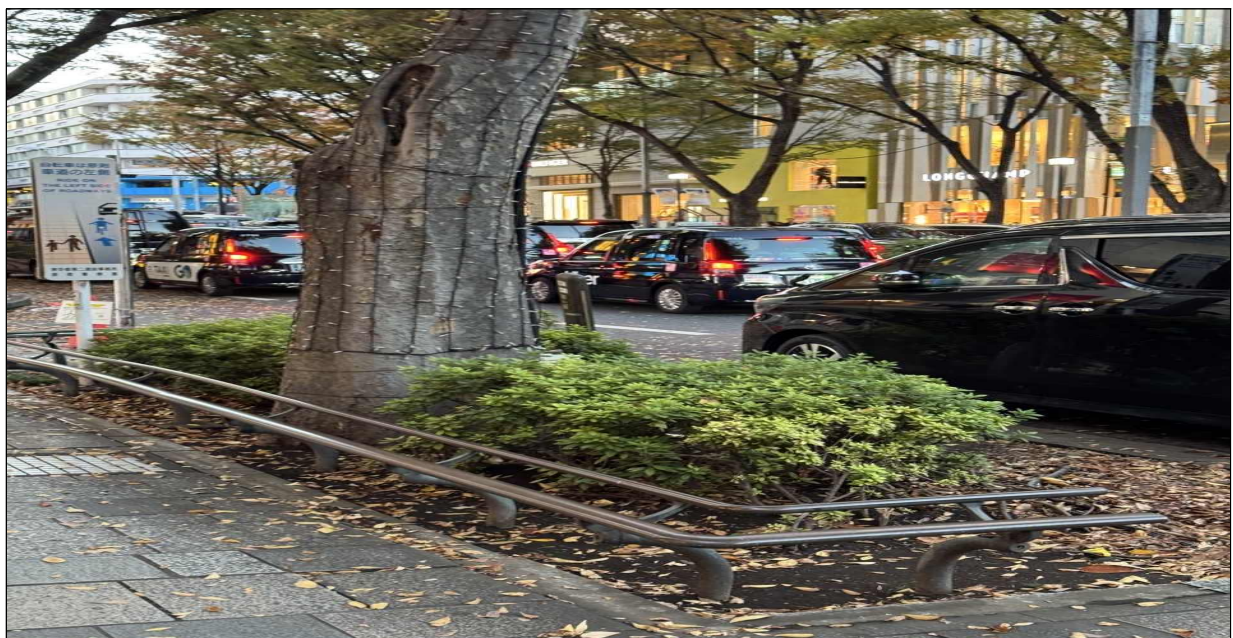
이어 도쿄 일정에는 도쿄 도심 내 요요기공원과 우에노공원을 방문하였다. 두 공원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버스킹과 거리공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 시는 현재 문화재단 주도의 공연 중심이지만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상형 문화공간 조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도쿄의 공원 사례가 좋은 벤치마킹 자료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원이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오산시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등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도쿄의 도심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원의 모습을 보며 향후 우리 시의 도시공원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도심 내 휴식형 가로시설 디자인

도쿄 시내 곳곳에는 가로수 보호용 펜스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형태로 설계 및 설치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세심한 도시 디자인은 시민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보행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오산시도 향후 가로환경 개선 사업 시 단순한 이동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잠시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쉽이 있는 거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벤치형태로 설계된 도쿄 시내 가로수 보호용 펜스

○ 마치며

이번 국외출장을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매도시인 히다카시를 직접 방문하면서 일본의 지방정치 형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도쿄의 공원과 가로시설 디자인을 보며, 도시 공간의 작은 변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번 출장에서 느낀 점들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은 오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